

Ⅲ. 소그룹과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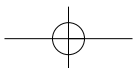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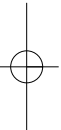
7과 소그룹 리더의 상담

8과 소그룹 리더의 중보기도(멘토링)

9과 소그룹 리더의 심방

단원 3





7과

3단원 : 소그룹과 멘토링

소그룹 리더의 상담



목 도 다함께

찬 송 365장 (구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욥기 13 : 1~19

참고성경 이사야 50 : 4

요 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 (욥 13:5)

말씀증거 사회자

서론

욥기에서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듯이, 상담이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지혜를 나누며,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없이도 선의와 양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돌봄과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돌보아야 할 문

제 상황이 언제나 선의와 양식만으로 충분치는 않으며, 간혹 선의와 양식을 행한 일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읍의 친구들이 그러하였고, 읍도 친구들의 도움으로 오히려 고통을 더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상담의 실제에서 얻어진 이론과 경험들을 소그룹 리더들이 간결하게라도 익히고 상기한다면 그룹 구성원들을 돌보는 일에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상담의 이론과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보다 나은 소그룹 활동을 모색하여 보겠습니다.

상담의 기본원리 1 - 질문과 대답

무엇보다도 상담은 말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개선하며,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가지는 힘이 곧 상담의 최상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상담은 말을 듣고, 말을 하게 하는 데에 요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어떤 ‘비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활용하는 일상 언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활동 중의 최상의 상담활동은 그룹 내에서 구성원이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룹상담의 출발이며, 말을 통한 문제 개선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항상 구성원 개개인이 골고루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를 하며, 말을 주제에 맞게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성원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리더가 돕는 좋은 방법은 리더가 질문이나 서론적인 말을 잘 구사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주

간에 어떤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하였나요?” “지난 주간 말씀을 읽고 따르는 데에 방해를 한 것들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흔히 ‘개방형 질문’이라 합니다. 구성원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반추하게 만들고 생각하여 답하게 만듭니다. 이에 비하여 “지난 주간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말씀을 잘 지키셨어요?” 같은 질문은 ‘예’ 혹은 ‘아니요’라고 답하면 이내 끝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폐쇄형 질문’이라 합니다. 그룹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룹 원들이 둘러앉아서 이런 질문에 답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공평한 시간을 갖도록 함입니다. “한 분이 1분 내지 2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 하지요. 2분이 넘는 분은 우선 멈추었다가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더 드릴 수 있어요.”라고 미리 시간을 조정해줌으로 그룹 시간을 효율성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미리 알려주고, 다음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이때 뒤로 빼는 사람이 있는데 리더는 “나는 패스예요”라고 말이라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것과 “패스”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에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일단 언어로 표현되면 아무리 괴롭거나 슬픈 사실이라도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수많은 상담연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을 괴롭히거나 무겁게 하는 것들일수록 입 밖으로 말을 통해 뱉을 때 그 ‘독’이 열어진다고 많은 학자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그룹 활동을 통해 구성원 중에 괴로움을 간직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리더는 공개석상에서 말하게 하기보다는 그룹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 ‘돌봄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그룹 활동 중에도 전체 구성원에게 ‘돌봄’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의 느낌이나 생각입니다. 무리하게 요청하거나 강요하면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문제 정황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질문을 ‘개방형’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경청해야 합니다.

상담의 원리 2 - 경청과 공감

상담에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단순한 ‘듣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민하는 이가 문제를 가진 힘든 사람이기에 앞서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감정’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인정이요, 상담자가 고민 자를 돌보기 위해 ‘진실’하게 대한다는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잘 들어주기만 해도 고민하는 이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 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험으로도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고민자의 고통은 자신이 ‘용납’되지 못하고, ‘조건적’으로 대해지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진 경험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리더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성원의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응대하면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리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리더는 구성원이 힘든 이야기를 할 경우, 먼저 ‘괜찮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식의 응원이나 격려를 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 앉은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보지,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식의 충고나 문제해결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선한 마음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민자의 가장 급한 바램은 ‘고민하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상대가 인정하여 주고 받아들이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자신이 싫어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통스런 자신’은 비현실로 화하여 개선이나 해결은 가능하게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리더의 수용과 용납은 고민자로 하여금 ‘아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하는 감정을 가지게 하면서 비로소 현실적 대처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위하여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민하는 그룹원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 참으로 속상하셨겠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당혹감을 느끼셨겠네요.” 등등입니다. “(~~그 사람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참으로 (... 당황 ...) 하였겠네요”라는 식의 표현은 매우 간결하고도 의미 있는 것으로 널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그의 감정을 되묻는 것도 매우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 섭섭하였다는 말씀이지요?”

상담의 원리 3 - 작고 구체적인 제안부터 보안유지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상담자인 리더가 할 수 있는 질문으로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공감), 그런데 어떤 면으로 도움이 필요하세요?”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혹시 고민하는 문제가 돈이나 재화가 걸린 문제일 경우에는 리더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도울 길은 없지만, 혹시 제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라고 함으로서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인 도움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나 가능한 해결책은 반드시 고민 자가 요청할 때 제시되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요”라고 고민 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개선책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실제로 고민 자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안유지’입니다. 문제는 크건 작건 개인의 사생활 및 자기보호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어떤 경우에도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기관이나 관련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외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 도움이 필요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식의 질문을 통하여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본인이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안’을 확약하여 안심하고 이에 대해

여 중요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고민하는 그룹 구성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지혜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작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찾아서 그것을 이름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돌봄에 있어서 철칙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대부분 거대한 해결책이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척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흔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시지요,”라는 충고나 조언이 도움을 주고받는 대화에서 자주 오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민 자에게 ‘거절’이나 ‘홀시’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가 답일 경우, 오히려 “우리 매일 ~시에 ~분씩 ~~하게 같이 기도해 보아요.”라는 식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도 요청과 기도 약속이 고민 자에게는 힘이 되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개인 상담이든 혹은 그룹 상담이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민이 ‘말’을 통하여 표현될 때, ‘로고스’이신 기록하신 영이 거기 임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의 날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의 문제에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것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상담자로서 우리가 잠잠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나요?
- 2) “학자의 허”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찬 송 366장 (구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8과

3단원 : 소그룹과 멘토링

소그룹 리더의 중보기도(멘토링)



목 도 다함께

찬 송 364장 (구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사도행전 9 : 10~19

참고성경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 : 25)
“서로 기도하라” (약 5 : 16)

요 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행 9 : 17)

말씀증거 사회자

서론

소그룹 리더로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그룹 구성원들을 보살피고 특히 구성원들이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특히

소그룹 리더는 목회자나 교사와 달리 구성원과 비슷한 연령대, 경험이 유사한 사회적 위치, 나눌 수 있는 경험 등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리더는 친근한 관계 속에서 구성원들에게 지혜를 나누어주고, 때로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의 새신자 교육부의 리더는 새신자에게 이런 도우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요즈음 사회나 교회 내에서 멘토라 부르는 데, 이는 목회자와 달리 같은 평신도로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로서 친근하게 곁에 있으면서 ‘코치’ 하는 사람을 일컬을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멘토링’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는 없으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경 내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바로 이런 멘토였으며, 바나바도 초기에 바울에게 좋은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멘토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중보기도’ 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1. 관계 맺기

멘토링의 첫 단계는 관계의 형성입니다. 즉 소그룹 리더는 구성원에게 소그룹이 신앙과 생활을 위하여 도움과 필요한 자원의 공급처가 될 수 있음을 전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적인 통로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소그룹의 목표와 의미로서 모임 때마다 고시되고, 목적으로 강조되어야 합니다. 물론 멘

토링은 공식적인 관계에서보다는 사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도 바로 이런 소그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소그룹이 멘토링과 상호부조를 효율적으로 행하면서 초대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은 아나니아가 사울이 목표하는 도시인 다메섹의 한 믿는 이들의 소그룹에 속하여 있음을 보여줍니다(19절 하반).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사울을 도울 것을 명령받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다메섹의 믿는 이들의 소그룹으로 영입하는 한 과정인데, 이때로부터 아나니아는 사울을 인도하고 멘토링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로는 아나니아의 활약상은 보이지 않으나 이는 성경이 간결하게 긴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비공식적 일상을 통한 도움

멘토링은 공식적인 관계에서보다는 많은 경우 비공식적으로 매우 일상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이들은 신앙생활의 법도나 예절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 멘토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는 소그룹에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공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나니아는 박해하던 사울이 신자가 되면서 다메섹 공동체에 들어 왔을 때, 많은 것들을 이제는 바울이 된 그 사람에게 멘토링하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다메섹 공동체의 대표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에서 메

지를 받아서 바울을 찾아 나서서 그를 비공식적으로 도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멘토와 목회자는 다르며, 멘토와 권위자는 다릅니다.

3. 강화하여 주기

멘토의 가장 큰 기능은 도움받는 이로 하여금 그도 자신이 필요한 자원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멘토가 도움받는 이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을 효율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멘토는 도움이 필요한 이를 필요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돕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능력이나 자원이 있는지를 발견토록 도와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멘토링은 상대를 도와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지 상대를 일종의 수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하여 한 일은 안수하면서 사울이 어떤 여정에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게 된 후 그 스스로 시력을 회복하여 장차 바울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4. 무엇이 필요한가?

멘토의 가장 중요한 일은 도움받는 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멘토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신자 그

룹의 리더인 경우 멘토도 자신이 이 공동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행로를 거쳤는지를 잘 압니다. 따라서 무엇이 새신자가 궁금해 하는 것이고, 무엇이 가장 힘든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멘토는 새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멘토는 도움 받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멘토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멘토는 자신의 살아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실수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가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줍니다.

5. 연락망에 접속시키기

멘토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인적, 물적, 연락망 곧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거기에 접속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멘토가 목회자나 다른 교사와 다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격이나 위치가 멘토와 도움 받는 이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구성과 접속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사회에서 멘토링이 가장 활발한 이유도 바로 이런 멘토의 특성 때문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다른 그룹과 그룹 리더들을 많이 알고, 그 속사정을 알 수 있기에, 도움 받는 이가 어떤 연락망에 적합하고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는 동일한 차원에서 이런 연락망에 접속하여 도움 받는 이의 현황이나 어려운 점들을 목도하고 직간접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나 신앙공동체들도 이제는 대형화하고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기에 이런 소그룹 지도자의 멘토링이 점차 더 필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멘토의 한계를 알고 지키기

멘토가 아무리 사랑과 선의의 마음과 의도를 지니고 있다 하여도 그에게도 한계와 제한점은 있습니다. 더욱 조심할 것은 선의가 지나쳐서 간섭이나 혹은 거꾸로 도움 받는 자만 생각하고 자신의 안녕과 필요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관계는 쌍방적이지 일방적인 것은 아니며, 특히 멘토링이 더 이상 필요로 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하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혹은 심리적 빚을 지게 되는 관계는 피차 피해야 합니다.

결론

1. 중보기도- 멘토링의 최상

중보기도는 소그룹 리더, 즉 멘토가 도움 받는 이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멘토의 중보기도란 멘토가 도움을 받는 이를 위하여 그 대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

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멘토링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순서가 중보기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나, 멘토는 특별히 자신의 기도 시간에 그룹 구성원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구성원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구성원의 필요와 간구할 것들을 대신 아뢰는 것이 중보기도의 순서입니다. 이때 리더, 즉 멘토는 구성원의 필요와 간구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소그룹에서 그룹 활동의 하나로서 중보기도를 훈련하고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원이 둘러 모여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간단 명료하게 개인적 혹은 전체적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에게 --를 주시옵소서” 하는 식으로 “옵소서”로 일종의 신호가 되게 하고, 이 신호가 나오면 그룹 전체가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한 목소리로 간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한 구성원): “주님, 수술을 앞둔 ○○자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그룹 전체):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하여 기도하면 그룹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필요한 중보기도의 제목도 알게 되고 그룹 구성원의 상황도 알게 되어 서로서로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내 삶에서 누군가의 멘토링을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준 멘토링을 생각하고 말해봅시다.
- 2) 아나니아의 멘토링이 이후 어떻게 계속 되었을지 상상하고 이야기 해봅시다.

찬 송 361장 (구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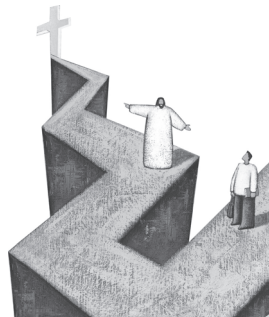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9과

3단원 : 소그룹과 멘토링

소그룹 리더의 심방



목 도 다함께

찬 송 534장 (구 324장, 주님 찾아 오셨네)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사도행전 15 : 36~41

참고성경 갈라디아 1 : 18

요 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행 15 : 41)

말씀증거 사회자

서론

심방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방하여 그의 사정과 상황을 자세히 알고 교제하면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바울이 개종 후 예루살렘으로 게바 곧 베드로를 찾아간 것을 ‘심방’ 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방의 예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 두루 나타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심방한 경우(창 18장), 각국의 사절들이 유대나 이스라엘의 왕을 심방한 경우 등입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임신한 엘리사벳을 심방한 경우는 교회역사상 매우 중요한 일로 특별하게 기억되면서 예식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심방이 교회생활에서 중요해진 것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급속도로 바뀐 이후입니다. 전통적인 마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살게 되면서 교회생활도 훨씬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되었을 때, 개신교 목회자들은 교회로 모여드는 신자들만을 돌보기보다는 필요하면 가정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직접 그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영혼 돌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심방은 개신교 교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면이 되었고, 특히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고유 활동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그룹 리더는 흔히 목회자를 따라 구성원을 심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심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심방은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직장이나 특별한 장소로 심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심방 : 리더의 소명이자 의무

현대 사회에서는 방문을 주업으로 삼는 직종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권하는 사람이나 어떤 종류의 방문 판매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방은 이와는 달리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방문 받는 이를 찾아가 대화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

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처음부터 이런 심방의 정신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방문하신 이래, 수많은 심방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래로 최대의 심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방하신 일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심방을 보면 그것은 상대가 요청을 해서 이뤄진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그 필요를 보시고 찾아가 도움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방은 믿음의 공동체의 소그룹 리더의 소명이요, 나아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그리스에 여러 믿음의 공동체를 설립한 후에도 잦은 심방을 통하여 그 공동체들을 굳건하게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의 심방은 여행이 어려웠던 그 시절 때로는 목숨이 위험해지는 경우를 마다한 심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2. 심방 : 멘토링과 상담의 기회

현대사회에서 심방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흔히 않는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복잡해진 현대생활에서 만남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 심방을 통한 조용하고도 집중된 만남은 집단생활에서 쉽지 않은 깊은 대화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생각해본 멘토링이나 상담이 바로 이런 심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멘토링이나 상담의 경우에서 생각하여본 ‘경청’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즉 리더는 심방의 어떤 특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심방 받는 이의 상황과 내적 상태를 잘 들어 주어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멘토링이나 상담도 실정황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도움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말하기 보다는 듣기
-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같이 느껴주기
-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상대로 하여금 잘 이야기하게 해 주기
- 조금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끝까지 인내하고 들어주기
- 이야기를 듣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느낌을 알아차리기
- 이야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혹은 도중에라도 차단하기
- 되도록이면 이야기의 주요점에 중점을 두기
-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논쟁하지 않기
- 이야기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말해지는 지에 관심 기울이기
- 쉽게 결론을 내리고 반응하지 않기 등등이다.

3. 심방의 실제

소그룹 리더는 흔히 목회자를 따라서 심방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목회자의 인도에 따라 심방에 참여하여, 심방의 실재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때도 심방의 예절을 알고 그에 따르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지도자로서 직접 심

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리더는 소그룹의 목자로서 심방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일 같으나 준비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심방 전에 명확한 시간, 장소, 목적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하루나 이틀 전 혹은 당일의 이른 시간에 확약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이때 심방 후의 스케줄이나 귀환방법 등을 간단하게라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구성원이나 새신자일 경우 심방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심방 받는 이가 모든 것에 낯설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례들을 말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심방장소에 가게 되면 리더는 간단하게 기도를 드린 후, 찾아온 목적과 의미를 이야기한 다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심방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심방 받는 이의 시간이나 스케줄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일정을 마음으로 그려가면 더욱 좋습니다.

간단하게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될 경우를 생각하여, 리더는 성경 말씀이나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심방 받는 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알맞은 성경과 찬송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가장 익숙한 성경과 찬송 및 기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시간을 전체 일정에 맞게 적절하게 지킬 것과 심방 받는 이의 동의를 구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방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헤어지기 전 간단하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헤어지기 전 저에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시간

을 간결하게라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을까요? ○○
 분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심방이 전도나 혹은 원래 목적 이
 외의 것으로 이용되면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4. 심방의 예절

주거환경 및 가족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심방의 모습도 많
 이 변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정
 심방을 어려워하거나 기피하는 소그룹 구성원도 있을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리더는 심방을 위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소그
 룹 모임에서 미리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심방을 기피하
 는 구성원이 있다면 리더는 그것을 편하게 리더에게 알릴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방에 대하여 공적 만남 중
 에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
 고 남녀 간의 심방이나, 심방의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구성원의 사적 영역 즉 집이나 직장의 사무실
 에 심방을 하였을 경우 리더가 지켜야 할 중요한 예절들이 있습
 니다. 첫째로 심방의 목적이나 내용을 미리 명확하게 이야기함
 으로 심방 시간이나 절차를 간편하고도 효율성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심방이 끝난 뒤의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대화함으
 로 접대나 귀환 등에 상대가 마음을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둘째는 심방의 주요한 목표나 목적 이외의 다른 내용들을
 대화의 내용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의 가
 구나 사무실의 소소한 내용들이 화제에 오르기 쉽습니다. 꼭 필

요치 않은 가족관계나 대인관계들을 묻게 되는 데, 이런 것도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심방이 이루어진 후에 간단한 연락이나 메모를 통하여 심방에 대한 의미나 문제 개선 등에 대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간단한 카드나 이메일(E-mail) 혹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결 론

이제까지의 심방이 주로 찾아가는 것이었다면, 요즘의 심방은 제3의 장소에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가족 캠프나 수련회 등을 통한 보다 의미 있고 깊은 만남들도 가능합니다.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예수님의 탄생을 심방으로 볼 때, 어떤 점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 2)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심방의 예절을 모두 모아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봅시다.

찬 송 511장 (구 263장, 예수 말씀 하시기를)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Ⅳ. 소그룹을 통한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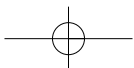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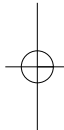
10과 소그룹을 통한 관계전도 전략

11과 소그룹의 효과적인 코이노니아

12과 소그룹별 관계전도 사례

단원 4





10과

4단원 : 소그룹을 통한 전도

소그룹을 통한 관계전도전략



목 도 다함께

찬 송 495장 (구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시편 126 : 5~6

참고성경 전도서 4 : 9~2

요 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 : 6)

말씀증거 사회자

‘전도’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감, 죄책감, 안 된다, 어렵다, 전도왕이나 하는 것이지 나같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녀서 중요한 직분을 받은 성도들조차도 전도이야기만 하면 부담감과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면서 전도를 생활화하지 못하는 이유

와 변명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세미나나 집회 때 만나게 되는 목사님들의 대다수도 예전과 달리 요즘은 도무지 전도가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아직도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해 오던 전도 방식으로는 이들을 불러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가 이제는 교회들마다 풀지 못하는 숙제가 되었으며,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너무 어렵기만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1. 관계전도의 패러다임 이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가 힘겹게 느껴지는 오늘의 이 현실 앞에 현대교회 전도의 대안 중에 하나는 ‘전도소그룹’입니다. 전도소그룹이란 소그룹 내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관계를 맺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관계를 통해 함께 전도하는 ‘관계전도’는 아파트 문화, 핵가족 시대, 첨예한 도시화 현상과 개인주의적 성향, 갈수록 복잡해져 가고 삭막해져 가는 현대인들에게 분명한 전도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농사짓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1년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최소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씨고, 다른 하나는 밭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좋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도를 ‘농사’라 한다면 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밭은 ‘불신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

리가 가진 씨앗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고 완전하지만, 밭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이 딱딱한 길가나 돌짜밭, 또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어렵고 열매 맺기가 힘든 것은 이러한 밭에다 무조건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라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열심히 일구고 잘 가꾸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신자의 마음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일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한번 데려올 목적으로 한두 번 찾아가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깊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밭을 잘 갈고 난 후에 말씀의 씨를 뿌리게 될 때 전도라는 농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2. 관계전도의 5단계

1) 기도하라

1단계 과정은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한 만큼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대상자들이 우리가 돕고 섬기며 최선을 다해 초청을 하면 인정상 한두 번은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하게 그리고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교회’에서는 전도소그룹이 시작되면 첫째 주 소그룹 예배에서 기도 짝을 정하고 기도 카드를 작성합니다. 전도소그룹

기간에는 전도대상자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기도 카드를 ‘VIP 카드’ 라고 합니다. 지갑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명함만한 크기의 이 기도 카드에 자신의 전도대상자 7명과 기도 짝의 전도대상자 7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기도 짝은 소그룹에서 2명씩 한 조가 되어 이루어지는데,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점검합니다. 또 이 기간에는 2주간에 걸쳐 특별새벽기도회를 갖으며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뜨겁고 충분하게 기도합니다.

2) 불신자를 섬기라

2단계 과정은 전도대상자 중 1~2명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1단계 과정에서 기도했던 7명의 VIP 중에서 2명을 뽑아 기도 카드에 따로 체크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그 2명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섬김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정성이 담긴 작은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찾아간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영화나 연극 관람, 기념일 축하 등의 가족 만남 등을 통해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따뜻하고 친절な 대화를 통해 칭찬과 격려를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또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갈 때 운전해 준다든지, 병원에 다녀오는 동안 다른 자녀를 돌보아 준다든지, 김치를 담아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통해 그들은 작지만 깊은 감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3) 함께 관계를 세우라

3단계는 함께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전도대상자와 일대일로 만나서 섬겼다면, 이 단계에서는 소그룹원이나 교회 성도 중에서 자신의 전도대상자와 연관이 있는 성도와 함께 만나서 섬기며 관계를 맺습니다. 섬기고 돕는 데는 혼자 보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쉽고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고향이 같든지,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자녀의 학년이 같아도 좋고, 남자들이면 같은 취미를 가졌거나 군복무 경력, 학교 등 어떠한 것이라도 연관이 있는 성도와 함께 가면 금방 친구가 되고 가까워집니다. ‘제자들교회’는 이 기간에 체육대회나 바자회, 기관별 야유회나 단합대회 등을 개최해서 자연스럽게 전도대상자들을 초대하고 성도들과 만나 관계를 맺어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4) 소그룹(속회)으로 초청하라

4단계는 그동안 관계를 맺고 섬겨왔던 전도대상자들을 소그룹(속회)에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른 바 ‘열린 소그룹(속회)에 배’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관계를 맺었어도 불신자들에게 직접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잘 안 나옴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징검다리로서 각 소그룹(속회)에 먼저 초청해서 작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경험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교회’의 속회 초청잔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하며, 작은 장식물들로 예쁘게 장식합니다. 식사는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데 초점을 맞

추어 정성껏 예쁘게 준비합니다. 식사를 마치면 재미있는 유머나 게임을 통해 모인 사람들이 함께 웃으면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때 선물(상품)을 미리 준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는 불신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찬양이나 가정에 관한 건전한 노래를 부르며, 그 후에는 이 날의 핵심인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간증을 위해 소그룹 리더들과 모든 소그룹원들은 간증자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미리 작성해서 준비한 5~10분 분량의 간증을 마치면 소그룹 리더의 기도와 함께 속회 초청 잔치는 막을 내립니다.

5) 교회로 인도하라

5단계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모든 일의 열매를 맺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섬김을 받으며 관계를 맺어왔고, 속회 초청 잔치까지 참여해서 감동을 받은 전도 대상자들은 이미 밤나무에서 익어 떨어진 밤송이와 같습니다. 이제 주위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들교회’에서는 속회 초청 잔치가 끝나고 한 달 후에 총력전도 주일을 정해서 초청잔치에 왔던 전도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전도는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뿌리고 심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농사처럼, 전도는 반드시 심은 대로만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관계전도는 지금까지 살펴 본 다섯 단계의 과정을 착실하게 실행할 때에 더욱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니다. 비록 많이 부족한 상태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할지라도 농부가 농사를 짓듯 최선을 다해 땀과 눈물을 흘려 복음의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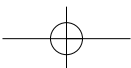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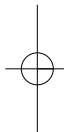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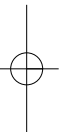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지금 나의 전도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2) 전도를 위해 어떤 단계가 꼭 필요할까요?

찬 송 499장 (구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11과

4단원 : 소그룹을 통한 전도

소그룹의 효과적인 코이노니아



목 도 다함께

찬 송 496장 (구 260장, 새벽부터 우리)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6 : 7~9

참고성경 로마서 10 : 13~15

요 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 : 9)

말씀증거 사회자

‘빌리 그래함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시행한 한 통계 조사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동원을 위해 준비된 대규모 일회성의 전도 집회나, 특별히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몇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집회보다 모든 성도가 생활 속에서 관계를 통해 전도했을 때의 전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도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균 일곱 번 정도의

계속된 만남을 통해 섬김과 좋은 관계를 맺은 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순한 말이나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만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통해 마음을 열 때 훨씬 쉽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소그룹원들이 함께 만나 섬김으로 교회로 초청되어 나오기 전에 먼저 여러 명의 교회 친구를 갖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까지의 전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전도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통념에 사로잡혀 효과 없는 기존의 방법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1. 전도에 대한 오해

1)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가운데 낯선 사람에게 전도되어 나오는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나 성회를 인도하게 되는 교회들을 보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교회에서 실시한 전도 행사는 거의 낯선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매주 모이는 전도 특공대 역시 여전히 전도지나 주보를 들고 낯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관계가 있는 친구나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선후배 등을 통해 교회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관계가 되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2) 전도는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불신자를 말로 설득하여 결단하게 하고 그 결과 교회에까지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아야 하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야 전도가 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단순히 말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욱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전도는 전도대상자에게 선불리 복음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도대상자를 사랑하고 섬겨 주며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3) 전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흔히 전도한다고 하면 단 한 번에 성공이나 실패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도는 한 번의 즉각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연속된 과정으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나무일수록 한 번의 도끼질에 넘어가지 않지만, 아무리 굵은 나무라도 여러 번 도끼질하게 되면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전도는 한순간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또 나무꾼이 나무를 하듯이 계획과 준비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니다. 어떤 상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4) 전도는 혼자서 보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도우며 일할 때 효과적 이듯, 전도도 혼자서 관계를 맺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관계를 맺을 때 불신자의 마음이 더 잘 열리게 됩니다. 불신자들 입장에 서는 한 사람의 전도자가 접근해서 잘해 주고 전도하면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섬겨 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그 공동체를 교회로 보게 되는 경향이 큼니다. 이렇게 여러 성도들과 친해지는 동안 불신자들은 교회공동체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점차 없어지고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교회까지 오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섬기고 관계를 맺도록 해서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사귀게 해 줘야 합니다.

2. 소그룹에서의 다양한 교제

‘제자들교회’의 소그룹은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한 다양한 교제의 방법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불신자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은 낯선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하고 부담 없는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해서 행복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는 교회로 인도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친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교제의 실례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그룹 야유회

‘제자들교회’는 선교회별 또는 교구나 목장별 야유회를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1년에 1~2회 정도 갖는데, 계절과 상황에 따라서 야유회의 성격은 다양합니다. 주로 봄과 가을에 갖는데, 봄꽃구경이나 단풍놀이 또는 등반대회나 갯벌체험 등을 함께 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이러한 야유회를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보면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됩니다. 뿐만 아니라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 옥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 체육대회

체육대회는 불신자들과의 중요한 교제의 장입니다. 봄과 가을,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불신자들을 도시 외곽 경치 좋은 초등학교로 초대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준비합니다. 체육대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초대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됩니다. 운동 경기나 게임에서의 상품이나 선물도 철저하게 불신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히 행운권 추첨 시 VIP들은 100% 당첨될 수 있도록 따로 추첨을 하며, 행운권 선물 중 가장 좋은 것들은 불신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그룹 원들의 섬김과

사랑입니다.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소그룹 원들은 자연스럽게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며, 소그룹에서 준비해 온 음식과 음료를 함께 먹고 이야기하면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3) 바자회

봄과 가을에 열리는 바자회도 매우 중요한 교제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바자회는 수익금을 남겨 다른 일에 쓰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제자들교회’의 바자회는 그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오직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풍성하게 대접하고 성도들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어 함께 관계를 맺어 가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바자회’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바자회의 모든 먹을거리는 거의 원가 수준인 천 원씩 판매되고, 기증된 의류나 물품도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어 불신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바자회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의 전도대상자들이 다른 소그룹 원들과 자연스런 관계를 맺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웃고, 이야기하다보면 어느새 불신자들은 많은 교우들의 친구가 됩니다.

4) 속회 초청잔치

마지막으로 속회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행해지는 속회 초청 잔치는 많은 불신자들을 소그룹으로 초청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자리입니다. 특별하게 준비된 장소와 장식, 예술작품처럼 환상적인 맛과 모양의 음식, 즐겁고 유쾌한 게임과 찬양,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간증은 많은 불신자

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줍니다. 함께 먹고, 웃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불신자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소그룹원들의 친구가 되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며, 나중에 교회로 인도되는 데에도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그룹에서의 다양한 교제는 전도 대상자의 굳은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밭을 옥토로 만들고 그들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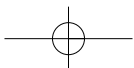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기 쉬운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 2) 지난 주간에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찬 송 500장 (구 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토의및광고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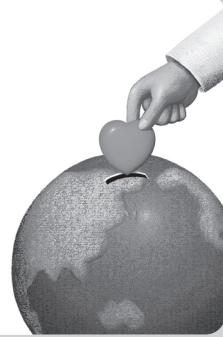
주기도문 다함께



12과

4단원 : 소그룹을 통한 전도

소그룹별 관계전도 사례



목 도 다함께

찬 송 498장 (구 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마가복음 1 : 16~20

참고성경 디모데후서 4 : 2~5

요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막 1 : 17)

말씀증거 사회자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한 무리의 젊은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도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고기잡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개인적인 활동으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하

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당시 그들은 한 팀이 되어 그물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했으며 때로는 여러 척의 배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요 21:6, 눅 5:6~7).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이 혼자 하는 낚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함께 사역하고 전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소그룹별 관계전도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도방법입니다.

● 제자들교회 소그룹별 관계전도 사례

1. 여자 - 이인숙 권사

전도소그룹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에 목장예배가 있는 저희 목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원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도소그룹의 첫 번째 주인 9월 25일 목장예배를 드린 후 전도소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계획과 전도소그룹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이 새신자인 저희 목장 목원들은 ‘전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전 초청예배 때 초대되었던 전도대상자들이었으나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바나바 환영식과 새신자 성경공부를 마치고 중급반 성경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원들에게 이러한 목원이 여러 명 있는 것을 다시 주지시키며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만나서 관계를 맺고, 초대하자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둘째 주, 10월 2일에는 목장예배 때 기도짝과 함께 앉도록 하고 목장예배 시작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짝과 14명의 VIP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1팀의 기도짝 외에는 매일 기도를 했거나 주중에 3~4일씩은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하므로 찾아가 교제를 할 때 선불리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목원들 모두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짝과 나다나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셋째 주, 10월 9일에는 지난주에 나다나엘을 찾아가 교제했는지를 서로 묻도록 했고 나다나엘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순서가 ‘나다나엘을 함께 만나라’이므로 목원들에게 언제, 누구와,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10월 13일과 14일에 교회에서 여선교회 주최 바자회가 계획되어 있어 여선교회 바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원들의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다나엘을 바자회에 함께 데리고 와 목장식구나 교회 성도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바자회에 나온 싸고 좋은 물건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목장초청 날짜가 11월 첫째 주로 정해지면서 저희 목장은 예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11월 6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초청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장소와 간증자를 정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아직까지 나다나엘을 만나지 못했거나 나다나엘이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나다나엘을 찾아 기도하고 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장초청예배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목원들이 하

나눔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나dana엘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자신의 기도제목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 장식을 상의하고 준비하며,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함께 다니면서 목원들이 더욱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dana엘 중 한 자매는 함께 교제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모임 중에 식사를 하며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두 번의 초청모임을 통해 저희 목장에는 18명의 나dana엘이 초대되었고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참석을 약속하고 미처 참석하지 못한 나dana엘들도 놓치지 않고 계속 교제할 것이며 초대된 나dana엘들도 계속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남자 - 하동만 권사

2005년 가을 전도소그룹의 시작과 함께 전도대상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업무특성상 꽃이나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 선을 체크하던 중 눈에 띄는 꽃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에 남았고 나름대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꽃집 부부를 위한 전도는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11월말 경 매월 한 번씩 결제를 하는 날 사무실에서 꽃집 여주인을 만나 차를 대접하며 이런저런 신변잡기 이야기를

나누고 최대한 편안함을 유지하여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화분을 보낼 일이 생길 때 마다 전화로 주문하여 친절하게 안부도 묻고 화분이 전달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잘 배달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인사도 되도록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전화로 주문하지 않고 일부러 화원을 찾아가서 직접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남편이 나와 동갑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면서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삼성동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7년 3월경 그분의 사무실 근처에 갈일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전화도 없이 음료수를 사들고 성도님 생각나서 왔노라고 둘러댔 생각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본인은 부재중이라 여직원에게 메모를 남기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전화를 걸어와 부재중이라 미안했고 방문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더 친근해졌습니다.

부부를 어떻게든 전도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어서인지 섬김 자체가 즐거움이자 기쁨이었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만 가득 하였습니다. 화분을 보낼 일이 자꾸만 생겼으면 좋겠고 비용이 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겨주시겠지 하는 배짱도 생겼습니다. 만날 때 마다 당신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한번 나와 보라고 부담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때까지 불교미술협회관련 전시회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까

지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열심히 섬기는 데만 주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혼 커플이었던 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때마침 준비되고 있던 부부세미나에 참석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미등록 성도로서 특별 초청 케이스로 부부세미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점차 그 부부에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관계 개선이 지속될 쯤에 2008년 가을 속회 초청잔치에 부부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잔치 이후 주일에 배의 초대에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맡고 있던 불교미술협회 임원직도 그만두면서 지인들에게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선포하며 2009년 1월에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이후 중급반 과정을 이수하고 교회 내의 모든 화분을 자식을 대하듯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 부부를 통하여 새로운 자극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 여자 - 이해숙 집사

전도소그룹이 시작되어 전도대상자를 찾던 중에 상가 빵집 주인이 떠올랐습니다. 5년여 동안 단골로 드나들며 친분을 쌓았던 터라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기도짝과 함께 밤 10시에 중보기도 시간을 정

하고 지켜갔습니다. 낮 12시쯤 빵집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 일부러 빵을 사러가서 포장도 같이 해 주며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끔씩 먹을거리도 해다 주며 틈틈이 “예수 믿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 큰 힘이 될 거야!”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섬기며 초청했던 가을 초청잔치에서 간증과 사랑에 은혜 받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교회로 인도되었고, 중급반 훈련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온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도 함께 믿게 되었고, 첫째 아이를 낳은 후 9년간 불임이었던 부부에게 둘째 아이가 생기게 되어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아파트 앞에 새로 개업한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VIP 카드’에 떡집부부의 이름을 올리고 기도하면서 섬겼습니다. 자주 찾아서 그런지 아저씨와 아이들은 쉽게 교회로 인도되었지만, 축구선수인 아줌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의 간식은 무조건 떡이었고, 심방가거나 선물할 때도 언제나 떡으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도 자주 이용하면서 섬겼더니, ‘제발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다. 꼭 교회 나가게 될 것 같아 불안하다’며 불멘소리를 했습니다. 주일이면 언제나 축구장에 나가 공을 차야 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청잔치로 초청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긴 결과 매주는 아니어도 시간 있을 때라도 다니겠다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축구 때문에 자주 빠졌지만 끊임없는 교우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점차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제자훈련과 영성훈련 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중에는 가게에서 대신 떡을 팔아주기도

했고, 영성훈련 중에는 아이들 밥도 챙겨주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우체국에 다니는 친구 가정까지 전도해서 아름답게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두 부부는 올해 집사 직분을 받아 또 다른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전도대상자를 교회나 소그룹 행사에 초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 2) 나는 누구와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까?

찬 송 516장 (구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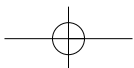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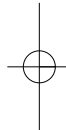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존 웨슬리 목사의 3가지 삶의 규칙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 ■ 존 웨슬리 목사의 3가지 삶의 규칙 ■ ■

존 웨슬리 목사의 3가지 삶의 규칙

1. 남을 해하지 말라
2. 선을 행하라
3.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Three Simple Rules of Rev. John Wesley

1. Do no harm
2. Do good
3. Stay in love with God

기독교대한감리회

■ ■ 교인 생활 수칙 ■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취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르고 신실한 믿음생활을 사회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이에 사회평신도국은 감리교인의 생활규칙을 제정하고, 그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감리교회의 생활 수칙을 만들어 공포하는 바이다.

목표

1. 웨슬리의 성화론적인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규칙으로 삼아 지켜온 신앙전통을 이어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2.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으로 사회생활 수칙을 선포하고 지키게 함으로 감리교인의 도덕적 수준을 드높인다.
3. 하나님의 복을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 교회를 부흥시킨다.

생활수칙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1. 교회생활 수칙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받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 ①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 ②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 ③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 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 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⑥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헐뜯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 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

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 ⑦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⑧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이다.
- ⑨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 ⑩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2. 가정생활 수칙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 ①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 ② 하늘양식으로 주간 마다(혹은 매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침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 ③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

성을 확립한다.

- ④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 (귀가시간, TV시청 시간, 식사시간 등...)
- ⑤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 ⑥ 모범가정 상을 제정하여 해 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 ⑦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데 힘쓴다.
- ⑧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는 최선을 다 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 ⑨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 ⑩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3. 일반생활 수칙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동회, 반사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 ③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 ④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 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 ⑤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⑥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 줌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 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려주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 ⑧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乡심을 기른다.
- ⑨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 ⑩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4.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보호에 헌신한다.

- ①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껴 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 ②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
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
한다.
- ③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 ④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
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 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 ⑥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
관을 기른다.
- ⑦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꽂초나 껌, 침 등을 함
부로 뱉지 않는다.
- ⑧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 ⑨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 ⑩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리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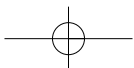
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5.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 ①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 ②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보도록하게 한다.
- ③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 ④ 약속을 꼭 지킨다.
- ⑤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⑥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 ⑦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 ⑧ 검약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 ⑨ 국가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의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 ⑩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 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려 감리교인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2010^{평신도}

월례회 공과 복음의 능력으로 섬기고 제자를 삼는 평신도

발행일 / 2009년 11월

발행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6층

TEL : (02)399-4346~8 / FAX : (02)399-4350

비매품